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4년 3월 15일 | 총권 31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13 2층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북유럽 도서관, 사람심리에 바탕을 둔 공간 구성

-북유럽 도서관 탐방을 마치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을 벗어난 지 오래다.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어느 사람에게 도서관은 개인 공간의 일부가 되고 있다. 가족이 도서관 나들이를 하는 것도 낯설지 않다. 이제 도서관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될 때다.

긴 겨울 동안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화된 북유럽의 도서관은 이 같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높은 천정과 나선형 계단, 다양한 색과 모양의 의자와 책상, 멋진 조명은 북유럽 도서관의 공통된 특징이다. 합리적인 가구 선택은 서가에서 돋보인다. 서가는 바퀴를 달거나, 아래를 뿔 뚫어놓거나, 경사를 깊게 두어 위에서 내려다봐도 책 제목이 보이도록 했다(이런 서가 모양은 서점도 마찬가지다).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서가를 1cm라도 옮기려면 모든 책을 빼고 여러 사람이 들어 움직여야 한다. 바퀴를 단 서가는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 뚫린 아래쪽에는 책등이 보이게 책을 담은 상자를 넣어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가의 아래쪽은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이용자의 외면을 받는다. 꼭 원하는 책을 찾을 경우 말고는 고개 숙여 아래쪽까지 살피며 책을 보지는 않는다.

서가는 꼭 움직일 때가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은 꼭 원하는 책을 찾기 위해서만 도서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북유럽 도서관은 이런 이용자의 특성을 서가에도 적용하고 있다.

책을 배가할 경우 표지가 전면에 보이도록 하는 Face-out식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시선을 끈다. 도서 거치대에 책을 전시하는 것처럼 놓아 이용자가 읽고 싶도록 한다. 이 같은 도서 배가 방식은 특히 어린이실에서 많이 활용한다. 그림책은 세워서 배가할 경우 어린아이들이 책을 빼기도 쉽지 않고, 두께가 얇아서 제목이 잘 보이지 않아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람석은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서가 사이나 창문가 등에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을 만큼 띄엄

띄엄 배치하였다. 열람석 크기 역시 1인용 책상이나 2인용 책상이 많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살려 지적활동을 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낮은 장소에 가서 앉을 경우 우리는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한다. 가까이 모르면 누군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방해받는 느낌을 가진다. 잠깐 앉을 경우에도 그런데 도서관처럼 오랫동안 머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열람석 배치에도 이용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눈을 끄는 멋스러운 디자인은 기본이고, 의자, 책상은 말할 것도 없고 커튼까지도 공간에 따라 색과 모양이 다르다. 북유럽의 실내는 대부분 어둡다. 도서관 역시 전체를 밝히는 천장 조명이 적고, 부분 조명인 데스크 램프가 주를 이룬다. 서가 맨 윗부분에도 형광등이나 할로겐 조명을 달았다. 조명은 다양한 모양과 감탄할 만한 디자인으로 눈을 즐겁게 한다.

도서관은 엄밀히 따지자면 시끄러운 곳이다. 출입문 여닫는 소리,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묻는 소리, 서가 사이를 걷는 이용자들의 발걸음 소리, 이제는 컴퓨터 자판 소리까지 시끄럽다. 그래서 분수나 음악을 작게 틀어놓아 다른 소음을 분수나 음악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일본 등은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북유럽은 '도서관은 시끄럽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서실 시설을 배치한다. 전자의 경우 휴게실을 마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휴게실로 이동하고, 후자의 경우는 집중 독서를 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이곳으로 이동한다.

도서관은 평생학습시대와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휴식 공간 기능도 해야 한다. 도서관의 디자인과 공간배치, 가구들이 도서관 직원의 따뜻한 손길과 만나 마치 편안한 집에 있는 듯하다. 합리성과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자란 아이들은 창의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고, 이렇게 체득된 미적 감각은 디자인 강국의 뿌리가 되고 있다.

박영옥 | 학도넷 운영진, 서울 연지초 사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책모임 책마중이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고명선 / 박미영 / 전선영 / 이루리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학교도서관의 산 역사, 경기고등학교도서관

-정미진 (경기고등학교 사서교사)

경기고등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학교도서관의 역사도 오래 되었다. 「경기도서관사」에 의하면 1958년 10월 8일 처음으로 경기고 도서관이 개관 되었다고 한다.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김종성 지음,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이는 1950년대 경남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대적 의미의 학교도서관을 개관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학교도서관을 개관한 것이라고 한다. 1976년 교사를 종로구 화동에서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긴 이후 화동에 남아있던 학교 건물은 지금의 정독도서관이 되었다. 이렇게 경기고등학교는 도서관 관계에 의미있는 흔적을 남긴 학교였다.

이런 의미와 역사의 무게 때문에 처음 경기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때 사서교사로서 부담이 컸다. 게다가 남학생만 1800명 모인 학교라니... 인수인계를 받으러 2월에 학교를 찾아가 보고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작은 대학 수준으로 넓은 학교부지에 도서관은 외따로 떨어진 단독건물 2층에 있었고 지어진지 40년 가까이 된 낡은 시설까지 보고나자 2월의 차가운 바람만큼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대로

경기고 도서관 협력수업 교실



사서교사가 있었던 학교라는 점, 교장선생님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높으시다는 것이었다. 전임 사서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100년 넘는 학교지만 장서는 비교적 최신이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시설부터 제대로 갖추어주려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학교 자체 예산을 들여 도서관 내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리모델링의 가장 큰 주안점은 '도서관 협력수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었다. 기존 도서관은 교실 3.5칸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이 별도의 구획 없이 사서교사 공간 → 수업공간 → 서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서관협력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업공간이 너무 산만하고 수업이 모두 공개되는 듯 한 분위기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 내부 구성을 사서교사 공간 → 브라우징 공간(북카페) → 서가 → 수업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수업공간은 별도의 벽을 세워 완전히 분리하였다. 단 도서관이 너무 답답하게 보일 것을 우려해 수업공간을 분리한 벽의 절반은 통유리를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정보검색을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협력수업 할 때 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10대 준비하고 와이파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설이 이렇게 바뀐 후 학교 수업과 연계한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졌다. 수업시간에 단순히 책을 읽으러 가도 되냐는 문의도 있지만, 사서교사가 먼저 협력수업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2013학년도에는 우리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심화형'에 선발되어 연구회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창



경기고 도서관 북카페

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회 소속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사서교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지리, 한국사, 프랑스어, 화학1, 보건교과와 협력수업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교과와 연계한 협력수업의 경우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아 도서관 협력수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도서관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관심 주제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와 연계된 저자와의 만남, 독서 소논문대회, 독서발표대회, 인포그래픽스 대회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 도서관이 최근 2,3년 동안 발전한 모습은 우리학교가 지난 수십년간 학교도서관 역사에 남긴 흔적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다. 하지만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우리학교 도서관 모습을 기대하며, 학생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도서관을 꾸려나갈 것이다.

이주영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독서 교육의 모든 것!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어린이책 200선

152x225mm | 484쪽 | 25,000원

저자가 생생한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고 교감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킨 책들을 모두 모아 소개합니다.



책 사랑하는 아이 부모가 만든다

152x225mm | 256쪽 | 18,000원

독서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놓치면 안 될 우리 아이 책

조월례 외 글 | 152x225mm
208쪽 | 15,000원

어린이 책 전문가 28명이 우리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에 대해 쓴 서평집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어른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해야 할까?

독서활동의 씨앗, 발췌독과 백권가약

-이금순 (전주 솔내고등학교 사서교사)

일회적인 행사는 이제 그만. 독서가 취미가 아닌 습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독서와 독후 활동이 재미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도서관 담당교사, 독서지도 교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운영계획서를 세울 때마다 월별로 동떨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엮어서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하고 싶었다. 그렇게 꼬박 8년을 채우고 이제 9년째 학교도서관을 꾸려가고 있다. 10년을 코앞에 두고 연계성 있는 독서프로그램 귀적을 그려봤다. 발췌독에서 백권가약 PBL 발표까지. 이제, 우리 학교도서관만의 특별한 독서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발췌독으로 시작하는 독서습관 기르기

솔내고 아이들은 매주 1시간씩 1학년부부터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수업을 받는다. 그 시간에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다. 10분은 독서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 『어느 독서광의 생산적 책임기 1, 2권』(안상현, 북포스), 『청소년 책의 숲에서 길을 찾다』(류대성, 인터북스),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김민영, 청림) 등에서 선별한 실천력 있는 이론을 A4용지 1장에 담아 매시간 배부한다. 그 안에는 독서의 목적, 좋은 책 고르는 방법, 독서의 방법과 독후 활동, 독후감 쓰는 요령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분은 책을 읽는다.

아이들에게는 미션이 있다. 인상 깊은 구절 세 개와 그 이유를 한 세트로 총 세 세트를 발췌노트에 적어오는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면 교사는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그리고 확인도장이 한 학기에 총 10개 모아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장은 하루에 한번, 발췌 개수도 하루에 세 개 이상. 그 조건을 지켜 10개 이상의 도장을 받기 위해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처음에는 구절 뽑는 것도 이유를 적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자 왜 그 구절을 뽑았는지 논리적으로 이유를 적어오기 시작했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발상을 적어오는가 하면, 본인도 몰랐던 상처의 단서를 책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책의 종류를 한정시키지 않고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해 읽으며 자기 마음에 닿는 구절들을 뽑는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치우친 독서를 하는 학생에게는 확인도장 아래 다음번에 읽기를 권하는 책을 소개해 준다. 마치 일기검사를 하는 것 같으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예뻐 보인다.

발췌문은 이후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에 씨앗 같은 존재다. 인문학 독서토론 한마당, 문학기행, 독서문화탐방,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독서캠프, 백권가약 등에서 발췌문은 꽃을 피우게 된다.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발췌문을 바탕으로 질문(논제)을 독후감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고미숙은 그녀의 책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에서 질문이 곧 공부임을 제안한다.

공부란 세상을 향해 이런 질문의 질문망을 던지는 것이다. “크게 의심하는 바가 없으면, 큰 깨달음이 없다.” (홍대용) 고로, 질문의 크기가 곧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 마음을 움직인 구절, 궁금했던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집중하여 물음을 던지는 것. 앞의 세계에 받을 만한 것. 교사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질문망을 엮는다. 질문이 팝콘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는 힘. 이는 곧 주제설정능력의 다른 이름이다.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논리력 그리고 조직력을 요구하는 논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꿈을 그려가는 독서 프로그램, 백권가약

백권가약은 지도교사 1명과 학생 4명이 팀을 이뤄 1년 동안 100권의 책을 읽어가자는 목적에서 시작한 독서 프로그램이다. 한비야 긴급구조 팀장은 ‘지금의 나를 키운 것은 고등학교 때 읽었던 100권의 책이다’라는 것에 힌트를 얻어 시작한 것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해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음해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도서관은 백권가약이 언제 시작하는지 묻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벌써 멤버구성을 끝내고, 계획을 세웠다는 팀도 있다. 올해는 6개월간 백권가약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이 컨셉이다. 참가신청서와 동의서를 받아 4인 1조가 된 10개 팀을 선발할 것이다. 선발된 팀은 한 달 동안 팀원이 함께 읽을 책 3권을 고르게 한다. 책 선정이 중요하기에 학생, 팀별 지도교사, 사서교사가 선정한 책에 대해 조율해 갈 것이다. 이후 3개월은 발췌하며 책읽기, 논제를 설정하여 토론하기, 토론 결과 프로젝트 주제 설정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논제(주제) 설정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에 경험있는 교사가 함께 할 것이다. 나머지 2개월은 프로젝트 준비와 프로젝트 발표대회(PBL)를 구상하고 있다. 학교단위 발표가 끝나면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전북 대회 발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발췌에서 시작하여 질문으로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구하여 찾은 꿈. 진로독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10개의 팀이 함께 각기 다른 100여 권의 책을 읽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프로젝트 발표대회는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본다.

책사랑, 든든한 동반자

이 모든 활동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은 단연 도서관 봉사도우미인 책사랑이다. 올해 12기인 도서관은 모든 독서프로그램, 심지어 수업에서도 교사를 돕는다. 확인도장이 10개 미만인 학생 선별하기, 작가와의 만남 준비, 독서문화탐방 기획, 인문학 독서토론 한마당 사회 및 놀이마당 진행 등. 아이들의 끼와 재능이 재주 없는 사서교사를 돋보이게 해준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도서관을 예쁘게 꾸미고, 책소개와 도서관 홍보를 성심껏 하는 아이들이 있어 솔내고 도서관은 매 순간 빛나고 있다.

고전독서읽기를 통해 논제를 뽑고, 토론하며 글쓰기를 실천하는 아이들. 일 년 후, 부쩍 자라있을 아이들을 상상하니 교사가 열정을 가질 수 밖에. 책을 사랑하고 매 순간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 도서관은 오늘도 싱그러움이다.



지리산 둘레길 문학기행



서유량 독서토론(학생 발제)



책사랑 11기 도서부



인문학 토론마당(월드카페)

책모임 책마중이 권하는 책

책모임 '책마중'은 2012년 길꽃어린이도서관에서 1년 동안 진행한 독서문화이공미과정을 함께 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독서문화이공미이 수료 후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지금의 책모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모임을 시작한 지난 1년간 책을 통하여 연결고리를 만들고 동화축제, 문학기행, 고장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페트리샤 플라코 글 / 아이세움

조금은 식상한 제목의 이 동화가 이렇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려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보면 이처럼 적당한 제목도 없다. 이 책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다. 난독증이 있었던 주인공 '트리샤'의 눈을 밝혀준 '영원한 영웅' 고마운 선생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책이다. 인생에 있어 좋은 스승을 만나는 행운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지식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그 진리를 아이와 함께 나누고 싶게 하는 책이다. (한정화)



아기구름 울보

김세실 글 / 노석미 그림 / 사계절출판사

가끔 영영 소리내어 울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강요를 받았거나 그러한 강요를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울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이 책에서는 시커먼 먹구름이 되도록 눈물을 참았던 아기구름이 마침내 실컷 울고 나자 동물친구들이 파란 하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그것이 눈물이라 할지라도 맘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윤경)



숨 쉬는 책, 무익조

김성범 글 / 문학동네어린이

책정리하던 아버지가 한결이에게 건네준 한권의 책 '숨쉬는 책, 무익조',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음독은 가능해도 해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연히 한결이는 읽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은이는 책이 살아나 날개가 없는 새 이야기를 읽어주도록 했다. 상상인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책을 읽는 내내 흰깃 무익조, 갈색깃 무익조가 사는 곳에 매료되었다.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살아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본다. (허수정)



소설 맹자

최인호 글 / 열림원

소설맹자는 최인호의 장편소설이다. 소설이란 장르를 통하여 맹자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하고자 했던 것 같다. 맹자 하면 공자를 빼놓을 수 없고 더 나아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렵지만 참 재미있게 읽었다. 공자, 맹자를 통하여 유교사상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금까지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전하고 있는걸 보면 결국 인간의 삶이란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논어 맹자가 어렵다고만 느꼈던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다. (조성민)



선생님 과자

장명용 어린이시 / 김유대 그림 / 창비

'선생님 과자'에는 과자 하나로 아이들을 들었다 냐다하는 알미운 선생님이 있다. 과자가 먹고 싶어 침까지 흘리는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약 올리며 먹는 선생님 과자만 바라보다 선생님이 다 먹어 갈 즈음 얼굴마저 과자처럼 노랗게 질려버리는 아이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어린이 특유의 솔직한 글과 맛깔스럽게 표현된 그림이 잘 어우러져 과자보다 더 맛있는 그림책이다. (채재현)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글 / 청미래

알랭 드 보통의 많은 책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읽었던 책이라 소개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풍경을 알랭 드 보통만의 특별한 시선으로 보게 한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곳, 경험하지 못한 풍경들을, 이미 오래 전에 다녀갔거나 혹은 그 곳에서 생활했던 보들레르와 플로베르, 워즈워드, 그리고 반 고흐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철학과 문학, 지식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작가의 깊이 있는 사색은 그가 다음 장소로 안내해 줄 때마다 행복한 설렘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경숙)



유진과 유진

이금이 글 / 푸른책들

여섯 살 때 같은 유치원을 다닌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원장으로부터 성취행을 당한다. 그 후 헤어졌다가 중학생이 되어 다시 만난다. 큰 유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유진이 기억의 파편을 쫓아가면서 밝혀지는 어릴 적의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청소년 성장소설이다. "사랑해, 네 잘못이 아니야"를 들으며 건강하게 자란 큰 유진과 "넌 아무 일

도 없었어. 앞으로 다시 그 얘기 꺼내지마. 그럼 너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라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강요당한 작은 유진. 나 또한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표현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게 만든 책이다. 특히 작가가 작은 유진을 통해 당부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오유미)



어처구니 이야기

박연철 글 / 비룡소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을 '어처구니없다'의 어처구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말썽꾸러기 어처구니들에게 하느님이 별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손'이라는 못된 귀신을 잡아오라 한다. 여러가지 꾀를 내어 다 잡은 '손'을 밧줄이 끊어져 놓쳐버려서 지금도 어처구니들은 손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궁궐 처마위에 앉아서 '손'을 지킨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우리생활 속에 녹아있는 민간신앙이나 구전되어 오는 옛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는 동화다. (김선인)



꾸삐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틀로르 글 / 오래된미래

실제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꾸삐라는 파리의 정신과 의사를 등장시켜 책속에서 행복여행을 떠난다. 여러 직업과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행복은 무엇일까를 찾아 행복수첩을 완성해 간다. 잔잔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책은 작고 소소한 것이 행복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배움과 행복은 남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나도 행복해질 것만 같다. (김원자)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코 상베 글 / 열린책들

수시로 얼굴이 새빨개져서 외톨이가 된 마르슬랭과 어디서나 '아이췌'하고 재채기를 하는 르네 라토. 이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둘은 서로를 보듬으며 친구가 된다. 하지만 곧 이사로 인해 헤어져 연락이 끊겼다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다. 서로의 콤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인정해주는 친구. 함께 있으면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결코 지루하지 않은 친구였다.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단점을 각자의 개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저 옆에만 있어도 좋은 친구가 부럽다. 책마중 회원들이 그런 친구들이다. (정은숙)

내가 권하는 책



고래가 들려주는 무지개 전사호 이야기

로시오 마르티네스 글·그림
김세희 옮김 / 마루벌 / 2010년 / 33쪽

이 책은 엄마와 어린 고래 두 마리가 얼음바다를 헤엄 치며 긴 여행을 떠나면서 엄마 고래가 어린 고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알베르토 푸엔페 갈레노아가 그의 어린 딸에게 들려주는 바다를 지키는 무지개 전사 이야기다. 아주 짧지만, 그림은 아주 꼼꼼 해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책이다.

만약 누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마당에 있던 예쁜 병아리나 강아지를 잡아 가거나 해치고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동물을 지키려고 온 몸으로 막고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먼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를 마구 잡이로 사냥하거나 가죽 외투를 만들어 입으려고 어린 바다표범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무서운 핵폭탄 실험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막기에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곤 했다.

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무지개 전사호의 대원들은 달랐다. 그들은 항구에 버려진 배 한 척을 수리해서 '무지개 전사호'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아기 고래를 지키기 위하여 먼 남극으로 떠났다. 그리고 고래를 잡으려고 머리 위로 작살을 마구 쏘아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고래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 그들은 바다표범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화학물질과 독성이 강한 핵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행동해서 막아낸다. 무지개 전사호의 활약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던 어느 날, 누군가 배에 두 개의 폭탄을 던져 무지개 전사호는 대원 한 명과 함께 영원히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다.

이 책은 살아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지개 전사호의 전사들처럼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지키는데 용감하게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

- 민승현(서울상경초 교사)



달의 정원

최선영 글 / 어린이 동화
2013년 4월 / 151쪽

동화 <달의 정원>을 만났을 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출품한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 씨의 작품 <갯벌이 다니는 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원 디자인을 하는 그는 작품의 모티브를 늘 어릴 적 보았던 한국적인 우리의 자연에서 찾아왔다고 한다. 어린 날 자연에서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표현한 말이라 생각된다.

갯벌이나 습지에 관련한 책들을 찾아보면 항상 아쉬웠던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갯벌을 소재로 한 동화책이었다. 대부분의 책들은 갯벌 생태를 백과사전, 보고서, 지식책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실적인 모습의 그런 책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꿈꾸는 상상의 나라로 이끌어 주기는 힘들다. <달의 정원>을 읽다보면 누구나 갯벌의 주인공 꽃비가 될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이 달과 지구 사이의 자연스런 관계임을 학습하지 않아도 책 속에서 알 수 있다. 갯벌을 달의 정원으로 표현하다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달의 정원>에 나오는 이야기 주인공들 물별이(비단 짱뿔어), 꼭지(농게), 대갱이(개소갱), 칠게 등은 갯벌 생물의 생태적 사실과 특징을 살려서 표현했다. 예를 들어 비단 짱뿔어가 피부로 숨을 쉰다거나 펄털공계가 탐을 쫓는다는 것은 순천만 생태를 친근하게 스토리텔링한 것이다. 또한 순천만 전망대가 있는 용산을 보고 순천 해룡면 농주리의 설화를 찾아 상상력을 가미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책의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서로 대립하는 갈등 관계도 나오지만, 결국 모두가 소중한 자연 생태계의 구성원임을 자연스레 알려주기도 한다.

누구나 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만끽하며 보낼 수는 없다. 어른이 되어 그것이 소중한 자산을 알면서도 현실과 경쟁 속에 눌러 나만의 선택을 하기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아름다운 자연의 상상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찾아 줄 수는 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한국적인 생태를 다룬 환타지 동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 권도경(길꽃도서관 자원활동가)



생태계의 보물창고 연못과 습지

르네 메를러 글 / 김희경 옮김
키다리출판 / 2008년 8월 / 36쪽

고창군 행정권 전역이 유네스코(UNESCO)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되었다. 그중에서 핵심지역 중 하나인 운곡습지를 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운곡습지는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으며 수달, 삿, 말뚝가리 등의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어 남다른 기대가 컸다. 습지를 탐사하는 중 벌에 쏘이기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생생한 인증샷을 경험하였다.

높이는 다양한 식물과 작은 동물들의 천국이며 수많은 곤충들과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 선택(Nature Selection)이다.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습지를 통해 생태 환경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멋진 자연 경관을 통째로 관찰하는데서 시작한다. 자연 관찰 체험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 놓은 듯한 생생함과, 자연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고 있다. 가까이 다가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찰하게 하며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감도 일깨운다. 자연의 콩팥기능을 하며 지구 생물의 20%가 사는 습지에 대해 설명한다. 결국 습지를 통해 자연을 관찰하고 수많은 생물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보호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

이 책의 저자인 프랑스의 르네 메를러가 쓴 책은 한국의 산야에서 볼 수 있는 식물과 곤충을 많이 소개하였다. 우리는 생명의 보금자리인 자연환경에서 습지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과 우리들의 생명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감을 심어주고 자연친화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해서 살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대자연의 생태 환경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느끼는 것만큼 즐거운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간접하게 하는 이 책의 특징을 마무리로 소개한다.

1. 자연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 안내.
2. 새로운 접근 방식의 생태체험, 자연 존중
3. 자연의 신비를 간접한 습지를 탐험하고 관찰하는 방법, 습지를 사랑하는 마음

- 안덕희(부천 소사초등학교 사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불순한 봉사

고명선 (경주 나산초등학교 도서관 도우미)

2012년 3월 첫째 입학.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혹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하는 불안감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서 아들의 학교생활을 감시코자하는 불순한 의도로 시작한 도서관 봉사. 두 아이를 키우며 집에만 있었던지라 뭔가 할 일이 생겨 처음엔 설레고 즐거웠다.

아침 9시 30분, 도서관 문을 열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열정적으로 청소하, 같이 봉사하는 엄마들과의 소소한 티타임, 그리고 도서 대출, 서가정리, 끝~!

마냥 즐겁고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책을 읽다 아무데나 꽂아두는 아이, 소파에 두고 그냥 가버리는 아이, 대출도 안 한 채 들고 가버리는 아이, 빌려간 책 안 들고 오는 아이들, 연체도서 독촉하면 “반납했다. 빌린 적 없다”며 항의 하는 학부모들까지…… 아이를 혼 낼 수도, 학부모와 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분실도서를 찾고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참 간단한 일 같은데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나 역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나 봤지 대출해준 경험이 없기에 정리하고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800번대 서가는 어찌나 많은지…… 그때는 그냥 숫자 찾아가며 그 많은 숫자 속 가나다 순에 맞춰 끼워 넣고는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가보다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온 날도 여러 날이었다. 그림책, 문고판, 성인도서로 구분 되어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가끔 꽂을 책은 많은데 책장이 왜 이리 비좁을까? 의아해 했었다.

사서 선생님이 안 계신 시골학교, 구전으로 내려오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으로 서가정리를 배웠다. 아직도 버벅 거리긴 하지만 P.800, A.800의 구분만으로도 한결 편해진 요즘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고심하며 회비를 걷어 각종 선물을 준비해 놓는 엄마들. 학교 앞 그 흔한 문방구도 없는지라, 책 열권에 딱지 한통, 쫓드기 하나, 공주지우개, 스티커, 젤리, 과자 등 수시로 선물도 바뀌가며 아이들 취향에 맞춰 준비했었다. 아

이들이 좋아하면 뿌듯해하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절로 어깨가 처지곤 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선물을 받아가는 무리 중에 내 아이도 끼어있음 좋으려면,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지 올 아들은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는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모자라는데 도서관엘?’ 대충 이런 반응이다. 그럼 “언젠 엄마가 도서관 봉사했음 좋겠다며~?”라고 발끈해서 되물으면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된다고~.”란다. 아들이 위안이 된다니 그걸로 만족해야 했는데, 도서관에서 책 읽는 아들을 기대하며 난 2년을 기다렸다. 아들의 가방과 함께 ^^;;

2014년 3월 둘째 입학.

올해도 난 도서관으로 간다.

우리 딸이 책 읽는 소녀가 되길 바라며…….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시골 작은 학교 사서로 살아내기

박미영 (용인 백암초등학교 사서)

학교를 졸업하고 18년 만에 내 전공을 살려 학교 도서관에 일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11년째 시골 한 학교 사서로 일한다. 그동안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에 따라 도서관운영은 널뛰기를 했다. 학생이 많은 큰 학교의 사서는 일이 많지만 작은 학교 사서는 일이 없다면서 학교신문업무와 교과서 업무가 주어졌다. 도서관 사서의 일을 단순 대출, 반납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어서 작은 학교의 사서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 도서관 업무만으로도 일이 많아서 포화 상태인데 다른 업무가 주어지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본연의 독서교육 업무가 힘들어졌다. 일이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아 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자신이 없다. 학기 중에 힘들다보니 방학 중에는 지쳐서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더 알차고 재미있게 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힘이 들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길수록 독서교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미있고 신나게 해야겠다” 구상이 가능한데 소통도 되지 않고 이해도 받지 못하다 보니 있는 능력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나는 학기 중 주말과 방학 중이면 좋은 외부 연수를

찾아다니며 재충전을 해왔다. 일하면서 월급에 10%를 재교육을 위해 투자한다는 소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내 자녀 얼굴을 뽀뽀하게 볼 수 있도록 일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도 누구도 아닌 우리 학교 아이들의 눈이다. 아이들이 부모, 교사, 친구들한테 상처 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 도서관이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치유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책과 쾌적한 환경,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을 맞이하는 일에 집중하는 행복한 사서가 되고 싶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고창에서 보낸 2박 3일

전선영 (서울가곡초등학교 6학년)

지난 여름, 나와 동생은 엄마를 따라서 고창으로 학도넷 출판캠프에 갔다.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방과 후 활동도 못 가게 되어서 많이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갯벌 체험도 하고 습지도 간다고 해서 여행 삼아 가보게 되었다.

우리는 신재효 선생님 생가에 가서 마중나온 책마을 촌장님의 판소리 한 자락도 듣고, 바로 옆 고창읍성으로 갔다. 읍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를 하며, 세 바퀴를 돌면 극락생천을 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있는 경치를 보며 우리는 읍성을 한 바퀴 돌았다. 읍에서 점심을 먹고 해리 폐교에 만들어진 책마을로 향했다. 책마을에서 촌장님께 일정 설명을 듣고 동화작가 이상교 선생님말씀도 듣고 짜인회도 열었다. 강아지풀로 강아지도 만들어보고 바닷가 풀잎들로 곤충도 만들어보았다.

책마을 해리에서 촌장님 딸, 우현언니 자매도 만나고 폐교에 만들어진 도서관에 남아있는 몇 천 권의 책들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밤에는 그림책강의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텐트에서 잤는데 밤중에 일어나 이상교 작가님과 함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

땅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반짝이는 별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서 더 아름다웠다.

다음날에는 동생이 깨워서 간신히 일어났다. 된다면 더 자고 싶었지만…… 아침식사가 끝난 후에는 고창갯벌에서 동죽(조개)을 쪄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끝이 없는 멀고먼 바다풍경을 보니 설레고 즐거웠다. 동생들인 진영이, 유나와 함께 조개도 줍고, 캐고, 바닷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발을 담그니 더 재미있었다. 조개를 쪄 후 몸을 씻고 바로 박물관으로 향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 에어컨과 선풍기의 위력에 덜덜 떨며 권윤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피카이아'에 대한 강의였는데 좋은 말씀은 많았지만 시간이 조금 길어서 약간 지루했다.

고인돌 박물관을 관람한 뒤 온곡습지로 향했다. 습지에서는 징그러운 벌레들과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다. 다음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해지는 광경을 보았다. 낙조는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거의 다 사라졌을 때 나오는 하늘의 노을 빛깔은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로 멋있었다. 하늘의 색이 바닷물의 색과 잘 어울려서 더 멋있었던 것 같다. 은근하게 조화를 이루는 바다와 하늘의 색을 눈과 카메라에 담은 뒤 다시 버스에 올랐다. 정말 피곤했던 하루였다.

마지막 밤에는 유나도 텐트에서 함께 잤다. 우리는 인형들과 함께 '법정놀이'를 하며 놀다 잠이 들었다. 밤에 귀신놀이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졸린 탓에 하지 못했다.

마지막 날이 되자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간단한 서평 쓰기를 배우고 서평도 써서 발표했다. 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정겨운 시골풍경도 보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아서 좋았다. 이렇게 2박 3일 캠프가 끝나고 어느덧 우리는 버스에 타게 되었다. 캠프는 캠프인지만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컴퓨터로 우현언니와 소식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다. 힘들었지만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계
인연
이루리 (도서출판 북극곰 편집장)

2002년 여름, 나는 당시 현암사 어린이책 팀장을 하던 지선 누나와 함께 이와사키 치히로의 그림책 <작은 새가 온 날>을 손에 들고 너무 기뻐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심지어 누나는 이런 찬사를 던졌다. 드디어 프로메테우스가 이름값을 하는구나!

집에 돌아온 나는 <작은 새가 온 날>에 관한 서평을 인터넷에 올렸다. 당시 나는 고려대 사회교육원에서 강의하면서 그림책의 재미에 푹 빠졌고 한겨레신문 하니 리포터로 이따금씩 <그림책 이야기>를 연재했다. 5년의 세월이 더 지난 어느 날, 나는 친구의 소개로 프로메테우스 출판사를 방문했고 마침내 신충일 대표를 만났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신 대표가 내가 썼던 <작은 새가 온 날>의 서평을 아주 좋아해서 나를 만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날 신 대표는 기적 같은 만남을 축하하며 내게 오나리 유코의 <행복한 질문>을 선물했다.

나는 신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행복한 질문>을 당시에 중이던, 지금의 도서출판 북극곰 이순영 대표에게 선물했다. <행복한 질문>의 감동 덕분에 나는 이순영씨와 결혼했고 함께 도서출판 북극곰을 시작했다.

다시 몇 해 뒤 어느 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프로메테우스를 방문했다. 북극곰의 지향을 보여주는 그림책 <북극곰 코드>와 <안 돼!>를 선물했다. 그런데 신 대표는 별안간 <행복한 질문>을 출간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왜냐는 질문에 단지 <행복한 질문>이 프로메테우스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출판사로 돌아온 나는 이순영 대표에게 <행복한 질문>을 출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순영 대표는 펴 듯이 기뻐했다.

<행복한 질문>을 출간한 뒤 나는 다시 신 대표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책을 추천했다. 그날 처음 합석한 여러 출판사 대표에게도 이 책 저 책을 소개했다. 지켜보던 평사리 출판사 석근이형이 물었다.

“좋은 기획안을 남한테 다 소개해 주고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책을 내시려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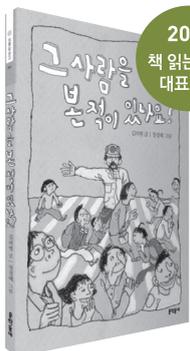
그러자 신 대표는 씨익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는데, 출판사 시작할 때 내고 싶은 책이 딱 두 권 있었는데. <창가의 토토>랑 <제1권력!> 이 두 권을 다 냈어. 마지막으로 히로세 다카시 선생의 <붉은 방패> 하나만 내면 지는 출판사 그만 두고 <양산박>이라는 술집을 할 거야.”

신충일 대표가 왜 <창가의 토토>라는 걸작으로 대박을 맞았는지 출판계 사람들이 왜 그를 그토록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혹 이해시켜 주는 대목이다. 그와의 좋은 인연에 감사드린다.

👑 전국 독자들이 선택한 문학동네 어린이책

홈페이지 www.munhak.com | 카페 cafe.naver.com/mhdn | 트위터 @kidsmunhak | 페이스북 facebook.com/kidsmunhak



2014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그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김려령 글 | 장경혜 그림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이 선보이는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 책 읽는 서울 올해의 선정도서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어린이책 우수도서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4 익산 한도시 한 책 선정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글 | 김동성 그림

교훈주의를 뛰어넘어 본격 역사동화의 진수를 선보인 동화

제9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 5-1 교과서 수록 | 알라딘 올해의 책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 2010 화이트 레이번즈 선정도서
교보문고 선정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도서 | 완주군 책 읽는 도시 선정도서
예스 어린이도서상 | 대구교육청 원복원시티 선정도서

학도넷 소식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3년 6월 15일 소식지 여름호 발행(총권 30호)
- 2013년 6월 22일 만남과 바람 “수원화성 탐사”
- 2013년 7월 6일 종일연수 “도서관에서 마인드맵 배우기”
- 2013년 8월 12~14일 여름사서연수 ‘생명그림책서평, 책마을출판캠프’
- 2014년 1월 6~8일 겨울사서연수 ‘아이들이 더 신나는 독서수업과 창의적 책만들기’
- 2013년 2월 21일 학도넷 새봄맞이 후원의 밤

신입회원 (2013년 6월~2014년 2월)

정회원 : 윤영선 박길제 이해영 홍선희 이말숙 권도경 황봉희 최정희 정관미 김지숙 정미순 황지순 유선경 김경수 이미하 이유정 박유니 김원만
준회원 : 고지혜 신영숙 최유미 김미경
웹회원 : 정소희외 39명

회비 및 후원내역 (2013년 6월~2014년 2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윤 김은영 선보배 이수연 구미숙 허지은 임행녀 길미숙 조선희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혜영 신정화 정혜선 윤남미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성주영 김대경 유정원 박준섭 차진미 김하나 이유정 이찬미 김선영 채재현 권도경 최선옥 이현 김경숙(보령)
- 매월 1만원 :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종성 조의래 조은영 김경숙 박영옥 김순홍 이경자 문예원글로피아 백화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숙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향미 박정해 강지영 박지연 류주형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조길량 김광재 조선희 황봉희
- 매월 3만원 : 윤성옥(해피북 책모임)

정회원 연회비 : 김영진(6만), 김봉화(10만), 마민희(5만), 김진희 문고(12만), 윤구병(30만)

준회원 회비

- 매월 : 장한솔(2천) 장버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권형(1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강형인(3천) 이재희(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인세후원 : 백화현 ‘도란도란 책모임’ (362,625원)

새봄맞이 후원의 밤 후원내역 : 창비출판사 100만/ 김중성 학도넷고문 30만/ 보리출판사 20만/ 윤구병 공동대표 20만/ 정진수 공동대표 20만/ 안재희 동화작가 20만/ 조영진 고래가슴쉬는도서관 20만/ 신형란 반포고 사서교사 20만/ 백화현 공동대표 14만/ 학교도서관 저널 10만/ 청소년출판협의회 10만/ 고무신학교 10만/ 어린이문화연대 10만/ 조월레 공동대표 10만/ 조희정 양철북 10만/ 정민호 문학동네 10만/ 최영미 사계절 10만/ 고희선 나한기획 10만/ 웅진주니어 10만/ 비룡소 10만/ 우리교육 10만/ 오승현 글로연출판사 10만/ 김혜원 학교도서관문화살림 10만/ 김경숙 윤현희 10만/ 정영화 개동이네책방 10만/ 박영옥 연지초등학교 10만/ 해움나래 10만/ 오현애 박물관이야기 10만/ 변영이 10만/ 박정해 양동중교사 6만/ 최미한 희망예술기지 5만/ 한명숙 남춘천중교사 5만/ 김정숙 전통중교사 5만/ 이강련 인천여공고교사 5만/ 손대희 5만/ 송인현 극단민들레 5만/ 책마중 5만/ 임행녀 학교도서관문화살림 4만/ 김은영 학교도서관문화살림 4만/ 전혜진 학교도서관문화살림 4만/ 이경자 학교도서관문화살림 4만/ 어린이책시민연대 4만/ 김경희 4만/ 선우성 4만/ 허기 봄봄출판사 2만/ 이현주 2만/ 이은혜 도봉고사서교사 2만/ 김옥희 길꽃 책풍경 2만/ 정민영 주니어김영사 2만/ 정완교 주니어김영사 2만/ 최은영 책모임책풍경 2만/ 정선애 관악도서관 2만/ 유승완 살림출판사 2만/ 문희정 2만/ 최윤정 관악교육복지

네트워크 2만/ 문소연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2만/ 김윤희 상도중학교 2만/ 송경영 신림중교사 2만/ 강애라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2만/ 여을환 어린이도서관연구회 2만/ 심미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2만/조민선 2만/ 이영숙 관악구청 2만/ 송수미 관악구청 2만/ 양일규 단대부중교사 2만/ 이정옥 서정초사서 2만/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2만/ 윤효선 책모임 책마중 2만/ 이경숙 책모임 책마중 2만/ 채재현 책모임 책마중 2만/ 이민식 길꽃어린이도서관 2만/ 신영숙 2만/ 김경희 2만/ 정구윤 책모임 책풍경 2만/ 정혜선 2만/ 양태희 2만/ 이미숙 대림도서관 2만/ 김소원 2만/ 박성공 2만/권도경 2만/ 장부자 2만/김효숙 2만/ 신정임 2만/ 강병희 2만/ 벼룩시장판매금 110000

후원의 밤 물품후원 : 김선영 신계초-인형1개, 머그컵세트, 칼라점토세트, 글라스데코, 클레이3봉, 석고가루5팩/ 박영옥 연지초-한지명함통, 한지그릇(소), 한지지갑, 색연필세트/ 오선경 연지초 학부모-커피잔세트, 맥도날드 머그컵, 조립식 장난감, 김혜원 학교도서관문화살림-무릎담요, 와인잔세트, 2단우산, 3단우산, 텀블러1,2,3, 휴대용물병, 액자소형, 디즈니 열쇠고리, 핸드폰방수팩1,2,3, 볼펜세트3(각), 여행용 파우치, 스포츠타올, 문구세트, 수제비누 세트, 바나나 보관용기, 컴퓨터 가방1,2/ 박윤희 연지초 학부모-텀버린 세트, 무말랭이 1팩, 텀블러/ 백화현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차잔세트, 비누 4개/ 박정해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청소기, 겨울점퍼1,2,3/ 신정임 반포중 사서-한복(여아 13호), 할로윈세트, 오리발 235~245

도서후원 : 초중교과 속독학습 국어사전(LBH 교육출판사) 10권/ 이야기 동양철학사 100권, 이야기 서양철학사 100권 살림출판사 <살림지식총서 전권을 구입하시는 학교에 책을 100권을 기증해주는 특전도 함께 주셨습니다.>

음식후원 : 막걸리 2상자 김동운 길꽃어린이도서관 관장님/ 김효숙 호박죽/ 김선미 나물, 고추장/ 정혜선 감자전/ 오현애 무생채나물/ 김경숙 식혜

학도넷 사서연수 후원 : 창비(50만)/ 고래가슴쉬는도서관(50만)

학도넷 사서연수 책 후원 : 고래가슴쉬는도서관(책 100권) 이주영(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어린이책 200선)50권/ 비룡소(옛이야기처럼 읽는 세계사, 악플을 달던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각35권/ 양철북(푸른별 아이들)/ 학교도서관 저널(과월호 80권, 특집호 30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고래가그랬어)/ 나와 우리(글로연)/ 오키나와의 목소리(공교)/ 까칠한 girl의 가출 이야기(나무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 102톤의 물음, 길이 학교다, 내 아버지 김홍도(낮은산)/ 재미버튼(다섯수레)/ 개똥 세 개, 벌레들, 밤을 달리는 스파이들, 검은 후드티 소년(북멘토)/ 일수의 탄생(비룡소)/ 여기는 취재현장, 양춘단 대학 탐방기, UN에 모여 이야기해 보아요,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게, 봉황불을 올려라, 새콤달콤 비밀 약속, 버스 왔어요(사계절)/ 남경태의 열려라 한국사(산천재)/ 이야기 동양철학사, 이야기 서양철학사(살림출판사)/ 교장 제도 혁명, 서울형 혁신학교 이야기, 10년후 통일(살림터)/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상식(시공사)/ 그리운 다섯 작가의 책을 찾아가는 지도(어린이문화연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옛이야기 들썩 우리 음악 열썩 하늘다람쥐 집 걱정은 하지마! 색깔이 궁금해, 왜 그렇게 생각해? 꼭꼭 씹으면 뭐든지 달다, 바다박사가 뭘래요! 어떤 소금을 먹을까? 우리 마을 환경미화원은 맨날 심심해, 우리 할아버지는 복춘 뽕쟁이, 궁궐에 나무 보러 갈래?(웃는돌고래)/ 공립 대안 태봉고 이야기(여름언덕)/ 꾸삐씨의 시간여행(열림원)/ 벌레 한 마리 드실래요?(월북)/ 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지식공간)/ 조와 비밀의 숲, 동물이야 식물이야(찰리북)/ 옷장속의 세계사, 누가 초콜릿을 만들까? 우리 동네 슈퍼맨, 밤을 지키는 사람들(창비)/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이야기, 10대와 통하는 기독교, 10대와 통하는 탄핵이야기, 무지개

욕심괴물,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철수와영희)/ 꼬랑 꼬랑 꼬랑내, 내 몸속의 시계(청개구리)/ 강아지동별,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마흔에 읽은 시(추수밭)/ 에레보스(탐)/ 지뢰밭 아이들(한울림어린이)/ 특종 20세기 한국사 5, 마법인형 마트로시카,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들려준 술회문이야기, 태극기 다는 날, 큰달 작은달 달력의 비밀(한솔수북)/ 나무에 돈이 열린다면(황소걸음)/ 청소년을 위한 세계문학에세이(해냄)/ 이야기 동양철학사, 이야기 서양철학사(살림출판사)/ 초중교과 속독학습 국어사전(LBH 교육출판사)/ 한 땀 한 땀 손끝놀이 어린이 손바느질(미세기)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도서관이야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독서신문, 독서르네상스운동 창립대회 자료집(독서르네상스운동)/ 학교도서관저널 여름방학 합본호, 12월호(학교도서관저널)/ 가교(한국NGO학회)/ 산책특집호(서해문집)/ 고래가 그랬어 119, 120호(고래가그랬어)/ 어린이 청소년 책(어린이도서관연구회)/ 책읽는 가족(1인출판협동조합)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학도넷 여름사서연수 했습니다

- 연수명 : 책마을출판캠프+생명그림책서평캠프
- 강사 : 조월레 선생님 (어린이책 전문가, 학도넷 공동대표) 권윤덕 선생님 (그림책작가), 이대건 선생님 (책마을 해리 총장)
- 때 : 2013년 8월 12일(월)~14일(수) 2박 3일
- 곳 : 책마을 해리, 전북 고창군 일원(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염전)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책마을 해리,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후원 : 고래가슴쉬는도서관, 창비출판사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했습니다

- 연수명 : 아이들이 더 신나는 독서수업과 창의적 책만들기
- 강사 : 백화현 선생님 (국사봉중학교 국어교사) 하진희 선생님 (재)종이문화재단 키즈북아트협회 회장
- 때 : 2014년 1월 6일(월)~8일(수) (3일간, 10:00~17:00)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도넷 새봄맞이 후원의 밤 했습니다

- 때 : 2014년 2월 21일(금) 오후 5시~10시
- 곳 : 클럽 오백
- 공연 : 나무 이효림과 친구 ‘평화의 노래’, 대금 최서윤 해금 유지선, 송실대 흑인음악동아리 다피스 힙합공연,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마르, 범주, 아미가타 트윈스터, DJ 유인상
- 벼룩난장
- 먹거리난장 : 오색 보름나물과 지짐들 그리고 막걸리

*** 먼길 달려와 흥겨운 자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오시지는 못했어도 후원으로 응원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